

2022
Jeonju Int'l Sori Festival
Annual Report

전주세계소리축제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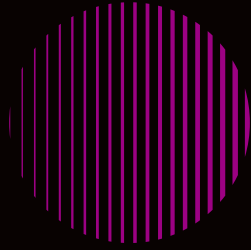


주최
전라북도

주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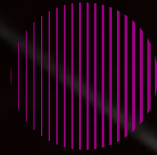
2022 소리축제의 발자취를 담습니다.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 엔데믹 시대로 전환되어가는 2022년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문화예술계와 축제는 모처럼 활기를 띠었고, 소리축제 역시 새로운 변화의 한 축에서 예술의 본질과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소리축제는 '실내중심 예술제'를 표방하며 공연예술제로의 방향을 충실히 짚어냈습니다. 작품 하나 하나의 완성도를 높였고, 공연의 확장성과 전통의 경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국내외 아티스트와 스태프, 소리천사(자원봉사자)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축제의 가치를 믿고 지켜봐 주신 관객분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며, 이 기나긴 여정의 순간들을 2022 연차 보고서에 담아봅니다.



Contents

04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요
06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08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 10대 뉴스
12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 종합평가
14	전문가가 본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
16	소리축제가 만난 사람들 Talk1. 아티스트편
18	소리축제가 만난 사람들 Talk2. 스태프편
19	소리축제가 만난 사람들 Talk3. 소리천사편
20	소리축제가 만난 사람들 Talk4. 관객편
22	2022 찾아가는 소리축제
24	2022 스태프
26	전주세계소리축제 연보

Jeonju Int'l Sori Festival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

주 제 더늠[20th+1]

일 시 2022. 9. 16. 금. ~ 25. 일.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치명자산성지평화의전당
부안 채석강,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연화루

프로그램 7개 섹션, 59개 프로그램, 76회 공연

2022 찾아가는 소리축제

일 시 2022. 9. 16. 금 ~ 10. 7. 금

장 소 전라북도 14개 시군 학교 및 공연장

참여학교 순창초등학교, 부안 남초등학교, 완주 구이중학교, 익산 금마초등학교, 군산 당북초등학교, 남원 사매초등학교, 장수 수남초등학교, 임실 관촌초등학교, 무주 안성초등학교, 정읍 동초등학교, 진안 장승초등학교, 김제 백구초등학교, 전주 금평초등학교, 전주 만수초등학교, 전주 동신초등학교, 부안 하서초등학교, 고창 북고등학교, 고창 해리중학교, 고창 아산중학교, 고창 대산초등학교

프로그램 [월드뮤직]

파코라 트리오(슬로바키아)
탱기에 흐워피(폴란드)
바르셀로나 플라멩고 발레(스페인)
투론(한국&우즈베키스탄)
더 캐처팡저 프로젝트(대만)
아메네(아프리카)

[공연]

소리극단 도채비 <도채비 SSUL 적벽대전>
창작집단 싸목싸목 <한국 호랑이 왕대의 모험>
헤르츠 아카데미 앙상블 <오리 날다>



더늠 20th+1

'더늠'은 판소리 용어 '더 넣다'라는 뜻으로, 소리꾼이 같고 닳아 온 고도의 기능적 성취와 수련 '자기화'의 영역을 의미한다.

올해 축제의 주제인 '더늠'은 공연 중심, 작품 중심 축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예술과 예술가의 정신에 대한 본질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더늠'은 그런 의미에서 올해 축제를 이해하는 좋은 길잡이이자 화두이다.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 메인 포스터 이미지는 주제어 '더늠'의 자음과 모음,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국영문 글자가 한 방향을 향해 모여드는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으며, 소리 축제를 통해 더늠 정신이 확대되고 집중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 LINE UP

오래된 결 : 전통 Being Heritage

전통의 원형을 오롯이 담고 있는 '오래된 결 : 전통'은 소리축제의 근간을 이뤄 온 고도의 예술적 가치가 담긴 전통 브랜드 공연들로 구성된 섹션이다.

판소리다섯바탕
왕기석, 박지윤, 김도현, 유태평양

산조의 밤
이동훈, 원완철

광대의 노래
풍운(風韻) - 풍류와 운치

마스터 클래스
김일구, 배연형, 최동현, 조상현

강릉단오제 단오굿

서산박침지놀이

더듬 FOCUS ON

그해의 주제를 잘 드러낸 섹션이다. 2022년에는 고도의 수련 과정을 넘어 '자기화'의 영역을 개척했다는 의미를 지닌 '더듬'을 주제로 '포커스 온' 섹션을 통해 '더듬'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예술가와 예술가 정신에 대한 본질과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선보였다.

개막공연
백년의 서사

폐막공연
전북청년열전-In C

전주세계소리축제×KBS교향악단
<접점>

판소리다섯바탕
심청 패러독스-방수미×박애리×정상희

[포르투갈] 바트 파두 Bate Fado

[스페인] 플라멩코 리:본 Flamenco Reborn

온고이지신 Young and Frontier

젊은 전통 음악가들의 진지하고도 유쾌한 도전을 담아낸 섹션이다. 미래의 전통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대를 관통하는 전통의 새로운 시도와 다채로운 실험들이 반영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젊은판소리다섯바탕
김정훈, 김원기, 김나영, 정운형, 김주리

오늘의 시나위
방울성, Project. 여운

소리프론티어 시즌2
• 김봉영×김승진 <판소리 드라마 '다시 쓴 엽서'>
• 소리극단 도채비 <도채비 SSUL 적벽대전>
• 그레이바이실버 <사계의 사잇곳>
• 소리 <로큰롤 심봉사단>

소리 인터페이스 Special & Popular

'소리 인터페이스'는 장르의 확장성을 엿볼 수 있는 섹션이다. 낯설게 느껴지는 다른 섹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익숙하면서도 수준 높은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중적 애호가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전주세계소리축제×전북CBS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Two Guitars
박규희 X 박주원

안예은 콘서트
전주 상사화

너머의 감각 : 컨템포러리 World Music Today

전통 그리고 오래된 것으로부터의 확장을 엿볼 수 있는 섹션으로 월드뮤직이라는 장르, 장르와 국가를 넘나드는 협연 무대를 통해 숨겨진 낯선 감각들을 일깨워주고 음악적 일탈과 탐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고니아 <장단 위의 선율>

[슬로바키아] 파코라 트리오 Pacora Trio

[한국] 더툰 <월담>

[한국] 덩기두밥 프로젝트

[대만] 더 캐처팡저 프로젝트
The Katzerfanger Project

[폴란드] 텅기에 흐워피 Tęgie Chłopy

[한국] 유희스카 <니나노 콘서트>

헬로우! 패밀리 Kids & Family

'헬로우! 패밀리'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섹션으로 가족 단위 관객들이 즐기기에 좋다.

이머시브 가족뮤지컬
알피 ALPI

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

전북어린이대음악제

소리배움터
강령탈춤 배우기

글로벌 랩 Glocal Lab

지역 예술가들의 유쾌한 반란 '글로벌 랩'은 지역 예술가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선보이는 섹션이다. 국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예술가들의 실험과 도전, 장르와 장르를 넘나드는 이채로운 음악들을 만날 수 있다.

전주판소리합창단
소리로 노래하다

살롱드국악 선율모리
<듣, 보, 고> 풍류

세악사
싱잉볼, 재즈트리오를 만나다

연희단 청연
합한 광대들

2022 맺음굿 : 진안중평굿보존회

2022 찾아가는 소리축제

소리정원

국악AI학습데이터 해커톤
기계학습데이터 맵핑_Sori N

· 2022 JEONJU INT'L SORI FESTIVAL ·

10

The Top Ten NEWS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 10대 뉴스



연대와 접점의 미학, KBS와 MOU 체결

전주세계소리축제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지난 5월 17일 KBS교향악단을 매개로 협력 의지를 모았다. 이번 협약은 소리축제 20년의 레퍼런스와 전통음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온 KBS전주방송총국, 유구한 역사와 인프라를 지닌 KBS교향악단과의 시너지를 통해 지역 전통예술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성사됐다. 그 첫 결실은 바로 전주 세계소리축제×KBS교향악단 <접점>. 축제 기간 비중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은 <접점>은 1부 쇼스타코비치, 2부 아리랑을 통해 전통음악과 클래식 만남을 수려하게 펼쳐냈다.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단연 올해 축제에서 가장 크게 화자된 공연이었고, 내년에도 보고 싶다는 앙코르 요청이 쇄도했다. 연대와 접점의 미학, 올해 KBS와 소리축제가 보여준 예술적 쾌거였다는데 이견이 없을 듯하다.

사무국 코로나 침공, 반격의 서막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살얼음판을 걸어온 지난 2년 여의 시간. 올해 사뭇 완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축제 준비는 운신의 폭이 훨씬 커지고 자유로웠다. 그러나 사무국과 초청된 국내외 아티스트들 사이엔 어쩐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준비나 과정에서의 차질 혹은 공백이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축제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는 직원들 사이 꼬리를 물며 퍼져 나갔다. 생존자(?) 세 명. 사무국의 85%가 코로나에 점령당했으나, 서로가 서로의 공백을 메우며 힘겨운 한 달이 채워졌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열린다. 직원들이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축제는 착착 준비되었고, 결국 코로나의 침공에서도 올해 축제는 곳곳하게 치러졌다.



폐막공연 <전북청년열전-In C> 그 '위대한 낮설음'

올해 폐막공연은 기획 단계부터 의견이 분분했다. 테리 라일리의 'In C'는 그만큼 핫한 이슈였다. 이 지루하게 반복되고 중첩되는 음악을, 무려 30명의 음악가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집중력을 붙들어 완성해 낼 수 있을까. 더욱더 걱정스러운 건, 관객들이 이 음악과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럼에도 소리축제는 관객과 아티스트들을 믿고, 동서양 악기 연주자 3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미니 멀리즘' 음악을 폐막공연으로 밀어부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리축제의 관객들이 얼마나 수준 높은 예술적 포용과 관점을 지녔는지 입증한 시간이었다. 숏한 연습을 거쳐 한 시도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으로 공연 70여 분을 몰아친 아티스트들은 혼연일체, 몰아의 경지를 경험했다. 아티스트들과 관객 모두 폐막공연 현장에서 바로 그 낮설고 두려운 경험, 아프락사스를 향해 '알'을 깨고 나오는 위대한 여정을 함께 했으니, 공연이 끝난 후에도 현장은 좀처럼 식지 못했다.

다시 이어지는 국제교류 : 캐나다 쉐페스트, 아랍에미리트

코로나19로 중지된 국제교류와 해외 초청공연이 마침내 다시 시작되었다. 올해는 스페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5개 국가의 음악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규모였지만 그 예술적 깊이와 다양성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소리축제는 올해 캐나다의 쉐페스트 SunFest-London 및 아랍에미리트의 버클리 아부다비 Berklee Abu Dhabi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교류 논의를 시작했다. 캐나다 쉐페스트는 매년 7월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개최되는 음악축제로 소리축제와는 각 지역음악가 국제 교류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아부다비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인 버클리 아부다비 대학에서는 아랍의 전통 음악과 젊은 음악가들의 다양한 국제교류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소리축제를 방문했다. 아부다비 문화부 관계자는 판소리의 스토리텔링 부분에 매료되어 판소리 공연 초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5

메타버스에서 만나요! 어린이 그림 공모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중에 하나는 가상세계를 추구하는 채널이 활성화되었다는 것. 소리축제도 올해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그동안 자유롭게 그린 평면 작품의 '어린이 그림 공모'에서 메타버스 채널을 활용한 '메타버스 어린이 그림 공모'로 새롭게 기획해 선보였다. 어린이 80%가 알고 이용한다는 메타버스 대표 채널 '제페토(ZEPETO)'를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그림 공모였다. 아이들은 참여하고 싶은데 부모 세대가 이 채널을 사용할 줄 몰라 참가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웃픈 에피소드도 있었으나 첫 시도의 염려와는 다르게 많은 어린이들의 관심 속에서 독창적인 작품들이 빛을 발했다. 선정된 작품들은 축제 기간 메타버스 채널인 이프랜드에 전시되었고, 축제장에는 큐브 형태의 조형물에 전시되어 소리축제를 찾은 관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끌벅적 떠들썩한 현장! 찾아가는 소리축제

소리축제 기간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다양한 공연과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다. 웅기중기 모인 아이들의 눈은 반짝반짝,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들로 가득 찬 각 학교의 '찾아가는 소리축제' 현장은 또 다른 신나는 무대였다. 슬로바키아, 대만, 스페인, 폴란드 등 평소에 만날 수 없는 해외 팀들은 월드뮤직 워크숍 형태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 국내 팀의 무대는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모든 작품이 수준 높은 공연임은 말할 것도 없다. 제대로 갖추어진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도 공연이 펼쳐졌지만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공연의 즐거움 이외에는 문제될 게 없어 보였다. 올해는 고창문화의전당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제대로 갖추어진 공연장에서 아이들이 공연을 관람할 기회도 함께 제공했다.

6

7

3개의 태풍 속 '태풍 없는 소리축제'의 기적

가을 축제는 늘 태풍과 동행한다. 근래 기후위기로 가을 태풍이 위력을 떨치면서 소리축제는 매년 이 반갑지 않은 손님과 대면해야 했다. 올해 역시 축제 한 달 전부터 심심찮게 태풍 소식이 오갔고, 축제 1주일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3개의 태풍이 한반도 상륙을 예고하며 위기를 고조시켰다. 무려 3개나 되는 태풍이 동시다발적으로 축제를 위협하는 일은 최근 10년 사이 처음이다. 사무국은 비상이 걸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기예보를 업데이트 하면서 예의 주시하던 차, 극적으로 3개의 태풍이 모두 한반도를 비껴갔다. 폭우나 태풍을 맞닥뜨린 축제는 1년 농사를 망친 농부의 마음과도 같다. 올해 수확의 기회가 주어졌다는데 사무국은 깊이 감사하고 안도했다. 태풍 위기를 벗어나 예기치 않은 9월 폭염이 축제의 절반을 점령했다. 축제는 이제, 기후위기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8

영상회의의 일상화, 21세기 스타일로 바뀐 축제 업무 방식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킨 코로나19는 소리축제 사무국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국내외 출연진들과 화상을 통한 제작 회의가 일상화되었다. 처음에는 화상회의를 하는 것이 약간은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시공간을 넘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전자계약 시스템의 도입이다. 그간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계약 시스템이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인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편리해졌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계약서를 바로 확인·서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제 스태프들 뿐만 아니라 출연진과 관계 기관 및 협력처에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다른 조직에 비해 조금은 늦은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축제라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소리축제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9

영상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색다른 공연

코로나 시국에 중요하게 대두된 부분 중 하나는 영상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아닐까 싶다. 공연계에서는 코로나 시국의 대안으로 비대면 영상공연에 시선이 쏠렸고 영상 공연의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이 영역은 공연 분야에서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소리축제 역시 변화의 흐름에 따라 고민하기 시작했다. 국창이라 불린 5명창의 고음반에 디지털 영상 기술을 결합하고 현시대의 젊은 예술인들과 조우할 수 있는 무대로 마련한 '개막공연 <백년의 서사>', 실감형 공연으로 입체적인 무대를 선보인 이머시브 가족뮤지컬 '알피', 국악 데이터로 기반으로 AI예술을 선보인 '기계 학습데이터 맵핑 Sori N', '메타버스 어린이 그림 공모' 등 올해는 그 고민의 결과물들이 담긴 프로그램을 비중 있게 배치해 선보였고, 관객들에게도 공연에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명소와 공연을 결합한 공감각적 무대로의 확대

올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지역 명소와 공연을 결합한 특별프로그램은 많은 호응과 호평을 얻었다.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연화루, 부안 채석강,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등 공연의 공간성은 확장되었고, 주변의 정취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기획된 공연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옥 건물의 아름다운 풍광이 어우러진 덕진공원 연화루에서는 젊은 소리꾼들의 열정 가득한 무대와 판소리 명창 및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판소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가 펼쳐졌다. 부안 채석강에서는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왕기석 명창의 수궁가가 펼쳐졌고,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는 가을밤의 정취와 함께 다채로운 기타 선율과 하모니카의 절묘함이 돋보이는 연주를 선사했다. 공연의 공간과 예술이 빚어낸 시너지의 효과는 탁월했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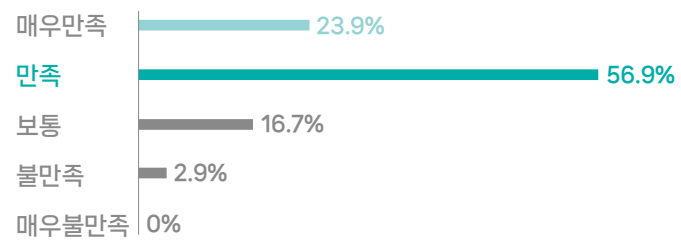


10

호감도, 만족도 높은 소리축제 다시 방문하겠다.

전체만족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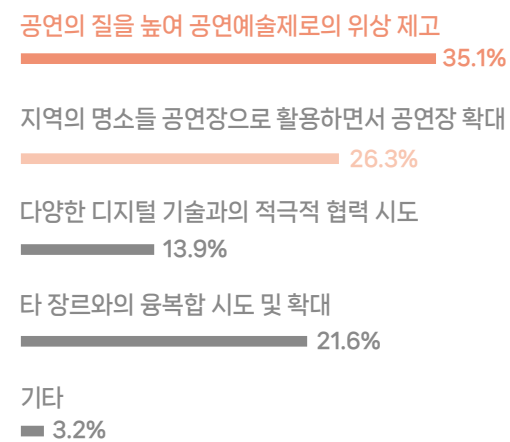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 관람객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만족도 점수가 4.02점(5점 척도)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지난해 (2021년 전체만족도 4.14점)에 이어 4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
종합평가보고서에서
내용 발췌
(주관: (사)문화연구창)

축제성과 평가

응답자 35.1%는 올해 소리축제가 실내공연작 중심으로 공연의 질을 높이고 공연예술제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라 평가했으며, 지역 명소들을 공연장으로 활용해 전라북도 전역으로 외연을 확대한 것 역시 26.3%의 응답을 얻어 높은 수준의 성과로 인정됐다.



재방문의향 및 추천의향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사는 평균 4.26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의향은 평균 4.2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축제에 대한 호감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축제 기획 및
추진이었다고 평가한다.”

축제조직위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축제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했다. 2020년에는 미디어·온라인 공연을 통해 공연예술관람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고, 2021년에는 실내 중심 공연 편성을 통해 공연예술제로의 도약을 준비했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 축제조직위는 소리축제 자체의 성장에 주목하여 20년을 위한 지향점으로 “실내 공연 중심 예술제”로 정하였다. (중략)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한국전통음악의 고유한 음악적 가치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전통음악의 현대적 해석 및 계승을 담은 프로그램, 변화하는 공연예술환경을 고려한 디지털융합 프로그램, 지역축제로서의 가치를 구현한 공연장과 지역예술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프로그램 등을 고르게 선보였다. 이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전통 음악의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며 세계적 음악과 교류하는 복합음악공연예술제로서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소리축제 본연의 목적과 높은 정합성을 보이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축제 기획 및 추진이었다고 평가한다.



전문가가 본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

올해 소리축제는 축제 기간을 열흘로 늘리고 공연 수를 반으로 줄였다.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가치에 주목하겠다는 목표다. 코로나19, 가을 태풍 등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 '실내공연 중심 예술제'로 전환했다. 예술제 시도는 호평을 받았다. 전통의 원형, 지역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깊어졌고 다양한 음악 팬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과감하고 다채로워졌다는 평가다.

박현우 기자 전북일보



개막공연

백년의 서사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개막공연 〈백년의 서사〉는 개인적 취향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성기 음반 속 대표 구파 배우 5명창을 새롭게 다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 중 가장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며 성장해 왔다. 20년을 지난 지금, '믿고 보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출처:문화+서울 10월호 中]

윤종강 국악평론가



공연이나 관객의 수보다 예술적인 질을 더 우선시하기 위해 실내 중심의 공연예술제에 대한 새로운 콘셉트의 모든 배경 정보에 감사하다. 나는 이것이 기후와 건강 위기, 폐쇄된 국경, 전쟁과 다른 지정학적인 도전의 시기에 지속 가능한 문화적 활동들을 위한 적합한 답이라고 믿는다. 평화와 이해를 위한 예술과 문화의 힘을 믿는 것은 10년 전과는 다른 답 그리고 일종의 대규모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엄청난 양의 공연 이상의 정의가 필요하다.

버깃 엘링하우스 Birgit Ellinghaus
독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위원회 자문위원



폐막공연

전북청년열전-In C

이 공연으로 우리는 확실히 또다른 깨달음을 얻었고, 그만큼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지평은 더 넓어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낯설음을 존중하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품격있는 시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낯설음에 대한 배타적 거부감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폐막공연으로 얻게 된 낯설음을 존중하고 확대하는 우리의 경험이 낯을 지역의 변화는 소리축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축제인지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다.

문윤결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공연 편성의 측면에서 보면, 갈수록 다양화하는 관객들의 기호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음악적 경향을 만들어 보여주기 위한 시도를 보여줬다.

임다연 기자 전라일보



판소리다섯바탕

심청 패러독스

판소리는 음악이자 극이다. 심청패러독스의 음악은 분명 기존의 소리 대목들이다. 그리고 고수 또한 한명이다, 그래서일까? 해체와 조합을 통한 과감한 연출이 돋보였다. 독특한 무브먼트에 디테일하고 강렬한 조명이 결합되면서 형식적인 독창성을 완성하였다.

오준석 엠제이플래닛 대표



Talk 1.

Artist

아티스트편

2022년 단 한 번의 무대를 위해
온 열정을 쏟은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개막공연 백년의 서사

연회를 새롭게 재해석할 때 전통과 현대의 흐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했다. 그래서 연회자의 특징과 어느 지역의 농악을 다룰 것인지를 파악하고 모던함과 세련미, 판소리와 장구만의 클래식한 조화에 집중했다. 이번 '정정령 x우도 콜렉티브' 작품에서는 호남우도농악과 장구놀이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오채질굿은 48박으로 진행, 특히 어사출두 부분은 작업하기 매우 어렵고 까다로워서 과감히 연주를 빼고 몸짓과 동작을 넣어 음원의 소리와 북 가락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연회를 전공한 입장에서 농악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 소리축제 공연의 참여가 매우 뜻깊고 즐거웠다.

김소라 우도 콜렉티브



폐막공연 전북청년열전-In C

전주세계소리축제 덕분에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을 음악을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함과 배려로 한 사람씩 신경 써주신 스태프분들 덕분에 음악에만 집중한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감사드립니다. 재밌고 재밌어서 재밌게 끝난 축제였습니다.

박장원 비파



김봉영x김승진 판소리 드라마 <다시 쓴 엽서>

지난 2010년 소리축제에서 만난 팀 그대로, 12년 만에 전주 세계소리축제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듯, 그때로 돌아간 듯,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상품을 만드는 것과 작품을 만드는 것은 지향점이 다릅니다. 상품이 성과 중심이라면 작품은 과정에서 그 가치가 발현됩니다. 소리축제에서 예술가의 창작과정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해주신 덕분에 판소리 드라마 '다시 쓴 엽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김봉영 엠제이플래닛[소리프론티어 시즌2 선정팀]



그레이바이실버 사계의 사잇곡

33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많은 관객들이 고요한 집중으로 함께해 준 기억을 저희 안에 깊게 새겼습니다. 특히 캐나다 썬페스트 SunFest의 알프레도 카사이 Alfredo Caxaj 감독님께서 "그레이바이실버의 음악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감동에 빠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더욱이 기뻐했습니다. 이 귀중한 경험은 분명 단번의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해야 하는 기쁜 과제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작품이 계속해서 심화되기를 바라며, 밀거름 되어주신 전주세계소리축제 측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한빈 그레이바이실버[소리프론티어 시즌2 선정팀]



바르셀로나 플라멩코 발레

소리축제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소리축제 팀이 준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임해줬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소리축제가 21년 동안 관객들을 성장시켜왔다고 믿습니다. 지난 저녁 서울아트마켓에서 만난 조나스&란더 Janas&Landers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는 모두 소리축제의 관객들이 최고라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이메 트랑코소 Jaime Trancoso 플라멩코 에이전시 CEO



젊은판소리다섯바탕

국민의 정서적 필요로움의 중심에는 문화의 성장이 있고, 국악은 국가를 짊어진 우리 음악으로 그 책임감의 무게가 실로 가볍지 않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세계음악의 다양성과 더불어 특히 우리의 문화적 표상인 국악이 대중과의 경계를 넘어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최고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더욱 단단히 쌓여가는 이 역사 속에 저의 소리가 채워졌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김주리 소리꾼



Talk 2.

Staff

백스테이지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백광일 소리축제 행정팀장

'관계자 외 출입금지', 'Only Staff'. 공연, 축제, 행사장에 가면 항상 보게 되는 안내문이다. 지난 5월 소리축제의 일원이 된 나는 관계자 그리고 스태프가 되어 무대 뒤편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무대 뒤에서는 무대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풍경들을 볼 수 있었고, 특히 리허설을 먼저 본 후 본 공연을 관람했을 땐 마치 좋은 공연을 연속으로 두 번씩이나 본 듯한 감동을 받았다. 벌써부터 내년 축제가 기다려지는 건 축제 관계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소소한 특권(?) 아니 혜택 때문은 아닐까?



조윤지 소리축제 기획팀원

빙그레 입사지원서에 보면 흔히 등장하는 '어린 시절, 목욕탕, 바나나우유', 이것만큼이나 흔한 축제의 지원 동기는 '어린 시절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온 기억'이다. 전북에서 자란 나는 가을이면 소리축제에 오곤 했다. 그리고 축제의 관객으로, 소리천사로, 기획자로서의 삶을 지내며, 짧다면 짧은 내 인생에 '소리축제'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키워드가 되었다. (아! 창조경제!) 올해는 유난히 소리축제가 나와 비슷한 누군가에게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많은 순간이 소중했다. 22년, 우리가 관객을 만날 수 있었던 10일 그리고 찾아가는 소리축제의 3주가 누군가의 꿈이 되고 좋은 나침반이 되었길.



우기하 영상감독

전통음악과 월드뮤직을 모두 선보이는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영상팀인 우리는 모든 관객이 조금은 낯설게 느낄 수 있을 무대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무대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어울리는 영상을 기획, 제작,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예술의 디지털화를 고민한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는 개막공연 '백년의 서사'를 시작으로 폐막식까지 멋진 기획, 훌륭한 스태프, 완벽한 공연이 존재했습니다. 매년 영상팀으로 이 축제에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모두 너무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태프면

Talk 3.

Sori Angel

소리천사면

소리축제의 꽃이자 숨은 주역인 소리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문주희 무대팀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설렘이었다. 축제 현장을 매일같이 누비며 축제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목적을 가진 우리는 주어진 일의 무게와 상관없이 설렘을 느꼈다. 설렘을 넘어 행복이라는 확신을 얻었을 때, 축제를 위한 자원봉사가 곧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고 이는 다른 어떤 경험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 전주세계소리축제와 함께 한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박세진 기획팀

매해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여 열렸을 소리축제. 그 일부가 되어본 경험은 생각보다 짜릿하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다. 관객으로서는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었을 과정들에 참여하면서 공연이 무사히 관객에게 가 닿는다는 사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 특히 기획팀 안에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알아가고, 자국의 고유한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며 발전시키고자 하는 해외 아티스트들을 가까이서 도울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소리축제를 위해 노고를 다할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홍민지 홍보팀

관객으로서만 소리축제를 보다가 '소리천사'라는 이름을 달고 축제를 만드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2022 소리축제에서의 지난 10일은 정신없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축제 기간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접했던 다양한 소리축제 현장, 팀원들과 부대끼며 만들었던 홍보영상들, 특히 누구보다 수고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신 매니저님들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폐막식을 잘 마치고 서로에게 박수를 보낼 때의 짜릿함이란, 우리를 다시금 소리축제로 데려다 놓기에 충분했다. 모두 보고 싶어요!



Talk 4.

Audience

관객편

축제 기간에 공연을 관람하신 관객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현장관객 1

어떤 공연을 관람하러 오셨고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들과 함께 박첨지놀이를 관람하러 왔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사실 전주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공연(서산박첨지놀이)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무형 문화재라는 것도 여기 와서 알았구요. 어르신들이 직접 하시는 것을 보고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하면 다시 찾아올 생각입니다. 잘 봤습니다.

기대하신 공연이 있으셨는지, 공연은 어땠나요?

바트 파두(Bate Fado)가 기대됐습니다. 월드뮤직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파두는 포르투갈의 민속 음악으로 우리나라의 판소리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바트 파두는 현대 무용수와 파두 뮤지션이 함께 어우러진 무대라고 들었는데, 탭댄스를 기본으로 춤을 춘다고 해서 기존에 생각했던 파두 무대와는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됐구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절로 몸이 들썩거릴 정도로 역동적이고 신나는 공연이었습니다. 연주자들의 멋진 연주와 익살스러움은 덤이었죠. 파두는 기타연주와 노래만 생각했었는데 색다른 파두 공연에 눈과 귀가 즐거웠습니다.



현장관객 2



현장관객 3

소리축제만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다양한 소재의 공연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국악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 국악을 접할 수 있는 축제가 많이 없다 보니까 국악을 중점으로 한다는 것이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지역 명소 공연을 관람하신 관객분들의
공연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연을 벗삼아 판소리로 이야기하는 마스터 클래스

'마스터클래스'는 지역 명소를 결합해 공연예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다. 관중들은 막힌 강의실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최고의 명인과 강사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소리축제 기간에 일반 관객이 김일구 명창, 배연형 교수, 최동현 교수, 조상현 명창에게서 판소리에 관한 이야기와 소리를 듣고, 직접 배워 보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규모 인원이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연화루에 앉아서 강연자와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과 소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도 좋을 것이다.



윤동환



이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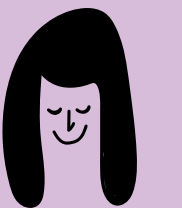
유럽풍 분위기 속 기타 듀오 선율의 절묘함

박규희와 박주원의 <Two Guitars>는 가을 날씨, 공연장, 클래식 기타라는 장르가 합을 이룬 최고의 공연이었다. 공연이 이루어진 치명자산 평화의전당은 천주교 성지에 지어진 곳인데, 뽕 뚫린 하늘을 지붕 삼은, 유럽 특유의 성당 건축양식이 사방을 둘러싼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다. 공간이 주는 묘한 느낌은 클래식 기타 선율과 더욱 어울렸다. 어쿠스틱 특유의 감수성은 가을 분위기에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렸고, 연주자들도 이런 곳에서 공연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리허설 때부터 너무 좋았다는 말을 계속하는데 보는 내가 괜히 으쓱해지는 기분도 들었다. 공연 후 집에 가는 길이 아쉽기는 처음이었던, 오래도록 기억될 시간이었다.

판소리 수궁가는 부안 채석강에서 들어야 제맛이지!

부안 채석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왕기석 명창의 수궁가.

아, 모처럼 호연기지일세!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너머로 하늘이 맞닿아 있고, 왕기석 명창의 절창은 편상절리와 파도에 부딪혀 바람 속으로 기세 좋게 흩어졌다. 수궁가 특유의 익살과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는 저 바닷속 용궁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했다. 나는 흠뻑 빠져들었다. 귀와 눈이 즐거웠고, 창자의 소리를 따라 저마다 풀어내는 상상력은 채석강이라는 특별한 무대를 배경으로 한껏 무르익어갔다. 1시간 여 넘는 공연은 관객과 자연, 창자가 일체감을 형성하며 순식간에 마무리됐다. 특별한 여운과 특별한 순간, 더없이 귀한 시간이었다.



이다미

찾아가는 → 소리축제

미래세대를 위한 예술 길라잡이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통해 공연을 관람한 아이들의
시선과 이야기를 전합니다.

- 01 한국+우즈베키스탄 <투론>
- 02 아메네 <릴리 : 뿌리>
- 03 헤르츠 아카데미 앙상블 <오리 날다>
- 04 바르셀로나 플라멩코 발레 <플라멩코 리:본>



한국+우즈베키스탄 투론

우즈베키스탄 전통음악과 정통 클래식 기타의 만남
진안 장승초등학교 / 김제 백구초등학교



지율

노래가 너무 좋아 무지개도 함께 불러요.
구름과 하늘도 소리를 좋아해요. 우즈
베키스탄 노래 소리가 좋아요.



서현 외국 사람이 한국 노래를 불러서 신기
하고 멋있었어요!



다은 아리랑 노래에 감동했어요.
기타가 가장 생각에 남았어요.



초원 세 개의 악기를 한번에 연주해서
신기했어요. 먼길을 와주셔서 감사
했어요!



하은 클래식 기타 소리가 좋았어요.
아리랑 노래가 재미있었어요.



태은 노란 동그란 악기를 돌리는게 신기
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메네 릴리 : 뿌리

서아프리카로 떠나는 전통예술여행
무주 안성초등학교 / 정읍동초등학교



이든

전 또 보고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끝났을 때 손을 잡아보고 싶었
는데 잡지는 못했어요 ㅠ.ㅠ 그래도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정말 최고의 무대였어요.



예원

오늘 공연 너무 멋졌어요 마지막 6학년의
추억 하나가 아메네 분들 덕분에 생겼
어요.



주원

평소 뮤지컬을 접하기 어려운 시골학교
친구들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관악기 연주로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더해 두 가지 공연을 한번에 보는 독특한
경험이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표정 연기나 몸짓 연기를 잘하셔서 실감
나게 느껴졌어요. 친구를 소외시키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규민

연기도 너무 재미있었고 음악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관람해서 더욱더 재미있었다.



바르셀로나 플라멩코 발레 플라멩코 리:본

리듬의 질서를 깨뜨려라! 플라멩코의 재탄생
고창문화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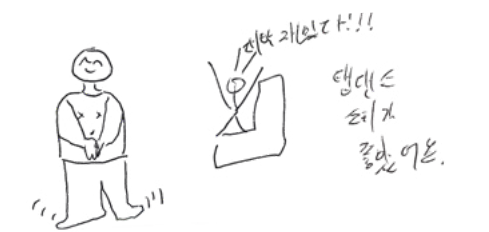


승기



현승

대박 재밌다!! 탭댄스 소리가 좋았어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라북도문화산업과		
임원 명예조직위원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조직위원장 김 한 집행위원장 박재천 부위원장 최동현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상임위원 천선미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원 이화동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상임위원 지성호 작곡가			콘텐츠운영부 기획팀 무대팀 한지영 부장 기획팀 조성원 팀장 조윤지 팀원 이은주 팀원 조유빈 팀원 정서영 인턴		
조직위원 김국재 前)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서배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인택 국립남도국악원 예술감독 김미진 전북도민일보 문화부장 김병오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변주승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장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CEO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양진성 임실필봉농악보존회장 유춘택 전라북도의국어자원봉사회장 이기선 前)전북자원봉사센터장 이기원 前)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미배 전북대학교 음악과 교수 이영호 前)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정지영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감사) 정진욱 前)전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			무대팀 김동인 팀원 대외협력부 홍보팀 행사팀 김희경 부장 홍보팀 박수경 팀장 이지환 팀원 김연아 팀원 전원준 팀원 김효진 팀원 이찬미 팀원 행사팀 김경훈 팀장 전선호 팀원 이수현 팀원 김민준 팀원 공정빈 팀원 행정팀 백광일 팀장 최다미 팀원 이미란 팀원		
집행위원 김병오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노복순 국악평론가 이미배 전북대학교 음악과 교수 이희진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조세훈 남원농악보존회 기획실장 이경진 前)용머리여의주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오선진 방송 프리랜서 박영준 우진문화공간 관장 최성엽 JTV(전주방송) 편성제작국 프로듀서			무대총괄감독 박기남 무대감독 김성빈 김응완 유지훈 이경채 무대크루 노경한 박성현 안현주 조병도 한재규 사이트 매니저 강정민 구국희 김문수 김정현 박선주 이동훈 전 솔 채동석 음향 이동욱 백영빈 김래영 김을 김현성 모악당/연지홀 이석재 김유정 문현중 박상빈 신정재 임희준 이시권 박홍민 야외공연장/명인홀 이규원 평화의전당 이진복 이훈재 외부공연장 이준희 김영호 마스터클래스		

전주세계소리축제 스태프	
조명 임재덕 정태진 정호진 조명디자인 이주호 김의민 문필건 오세혁 윤세진 모악당 오예슬 이지나 연지홀 송인훈 명인홀 유봉준 외부공연장 구조물/야외공연장 조명 노강섭 권순문 송재형 김효진 무대 김대한 김종휘 경우진 무대디자인 배정섭 어윤호 무대제작 영상 우기하 최석주 김경상 김윤선 박소라 송수인 이강석 장수호 전용곤 조민서 조용윤 중계촬영 고재훈 고은찬 김충곤 최병훈 개막공연/채석강 박홍배 김동완 박경률 문일호 모악당/연지홀 이성민 김연욱 양준수 유명기 이동길 야외공연장 임성빈 박래렬 김거성 소리천사 영상 행사시설 김진형 박두산 발전기 박종철 찾아가는 소리축제 정대수 강은아 김정민 최병욱 코디네이터 류선정 노민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정희석 본부장 이용재 사무처장 경영관리부 한홍민 부장 임익중 정범수 이동수 과장 최미송 대리 이성윤 유민정 문화사업부 기획사업팀/무대기술팀/무대운영팀 박홍재 부장 기획사업팀 이기연 이안나 과장 강성웅 김미라 대리 송한별 무대기술팀 박성일 팀장 정대영 박은성 백우진 배태호 기계감독 김지현 대리 한승주 장오성 연혁찬 안승주 무대감독 무대운영팀 박영모 팀장 남성훈 과장 정영모 조종호 장준오 음향감독 장정규 박성진 송두영 과장 정택진 김찬웅 조명감독 고객지원부 강현규 부장 김미미 과장 안은홍 함지수 노수영 김경태 손승연	

소리천사	
행사팀 상황실/이벤트 홍민표 조장 최세연 부조장 김경빈 김산희 김승리 김주미 김하늘 김현주 양한수 조소희 진산하 행사팀 행사장 지원 전수진 조장 김민정 우채림 이수빈 이수진 이진서 임우진 정진영 진하람 한영진 무대팀 모악당/연지홀 김승현 조장 문주희 부조장 김지성 이다현 이해빈 정인혜 정혜민 주현우 무대팀 명인홀/야외공연장 국미연 조장 서현덕 조장 김나연 민복민 박지윤 양승훈 이요한 이유리 정승아 황선주 홍보팀 강민 조장 홍민지 부조장 김성찬 김채연 김한솔 김호야 박민태 백다희 선용진 유혜원 전인서 조수진 최다운 기획팀 박선주 조장 양은비 부조장 강민정 고은지 촬영팀 김주영 박세진 박채린 박희수 백서영 서하진 오인영 이원준 이지민 정우성 조우진	

Jeonju
Int'l Sori Festival

연보

2001	우리 전통음악을 기본으로 세계적 음악 전통과 현재의 흐름을 소개하는 창조적 축제			
	주 제	소리사랑 온누리예	위 원 장	천이두
	일 시	10월 13일 - 10월 21일(10일간)	총 감 독	강준혁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공 연 팀	15개국 142개팀 4,000여명
2002	한국전통음악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세계적 음악을 포괄하는 종합축제(예술축제+산업형축제)			
	주 제	목소리(Voice)	위 원 장	천이두
	일 시	8월 24일 - 9월 1일(8일간)	총 감 독	임진택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통문화특구(현 전주한옥마을)	공 연 팀	16개국 156개팀 4,500여명
2003	세계음악의 보편성과 축제성을 토대로 판소리가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모색			
	주 제	소리, 길, 만남	위 원 장	천이두
	일 시	9월 27일 - 10월 5일(10일간)	총 감 독	임진택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전통문화센터	공 연 팀	14개국 172개팀 5,000명
2004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장르와의 연계 및 확산을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			
	주 제	소리! 경계를 넘다	위 원 장	안숙선
	일 시	10월 16일 - 10월 22일(7일간)	총 감 독	곽병창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대학교 일원	공 연 팀	14개국 190개팀 2,800여명
2005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장르와의 연계를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			
	주 제	난(亂), 민(民), 협률(協律)	위 원 장	안숙선
	일 시	9월 27일 - 10월 3일(7일간)	총 감 독	곽병창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 일원	공 연 팀	25개국 190개팀 4,600여명
2006	지역 정체성 확보와 우리 음악의 월드뮤직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동참하는 세계화에 초점			
	주 제	소리, 놀이	위 원 장	안숙선
	일 시	9월 16일 - 9월 24일(9일간)	총 감 독	곽병창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공 연 팀	22개국 184개팀 2,692여명
2007	판소리 중심의 월드뮤직 축제			
	주 제	소리, 몸짓	위 원 장	안숙선
	일 시	10월 6일 - 10월 14일(9일간)	총 감 독	곽병창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내 일원	공 연 팀	10개국 131개팀 2,840여명
2008	판소리 공연의 전진배치로 정체성 확보 및 대중성 강화			
	주 제	소리, 오락	위 원 장	안숙선
	일 시	9월 26일 - 10월 4일(9일간)	총 감 독	안영수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주시내 일원	공 연 팀	16개국 280개팀 3,800여명
2010	판소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화와 대중화 시도			
	주 제	시간을 넘는 소리, 세대를 잇는 감동	위 원 장	김명곤
	일 시	10월 1일 - 10월 5일(5일간)	총 감 독	김정수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일원, 전북대삼성문화회관	공 연 팀	9개국 3,200여명
2011	판소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화와 대중화 시도			
	주 제	이리오너라 UP GO 놀자!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30일 - 10월 4일(5일간)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공 연 팀	9개국 1,616명
2012	국악대중화를 통한 소리축제의 위상 강화			
	주 제	소리 한 상 가득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13일 - 9월 17일(5일간)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공 연 팀	18개국 1,529명
2013	국악 대중화를 통한 세계축제로서의 면모 갖추기			
	주 제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랑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2일 - 10월 6일(5일간)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공 연 팀	37개국 2,834명
2014	국악의 다변화로 현대와 소통하는 축제			
	주 제	대마디 대장단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8일 - 10월 12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공 연 팀	29개국 1,300여 명
2015	비교음악제 확대를 통한 세계축제로서의 위상 강화			
	주 제	소리 Big Party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7일 - 10월 11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28개국 1,300여명
2016	'모던한 공연예술'로서 판소리의 가능성 실험, 축제공간의 만족도를 높여 '체류형 축제'로의 변화!			
	주 제	세상의 모든 소리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29일 - 10월 3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 연 팀	28개국 1,300여명
2017	관객과의 소통을 확장하며 판소리와 한국음악의 현대적 보편성 확보			
	주 제	Color of Sori(때깔 나는 소리)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20일 - 9월 24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33개국 1,100여명
2018	국경과 세대, 성별을 초월한 대동의 판을 연출해 공동체 의식의 복원			
	주 제	소리판타지(Sori Fantasy)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3일 - 10월 7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18개국 1,116명
2019	세대, 이념, 지역 간의 갈등과 경쟁을 벗어나 전통예술 속에 담겨진 치유와 위로의 가치 전달			
	주 제	바람, 소리(Wish on the Winds)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2일 - 10월 6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20개국 1,082명
2020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미디어-온라인 공연 5選 엄선,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방역 안전과 미디어 영향력을 우선한 차별화 된 축제			
	주 제	_있다(Link)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16일 - 9월 20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비대면/온라인(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공 연 팀	218명(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2021	'판소리'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조명과 지역 예술가들의 역량 결집, 예술성 있는 작품 소개로 미래 20년의 분기점 마련			
	주 제	소리 #20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29일 - 10월 3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100개 단체 391명
2022	'실내중심 공연 예술제'를 표방하며 공연의 질적 가치에 주목, 공연과 공연장소의 확장성 및 전통의 경향성을 제시한 축제			
	주 제	더늬(20th+1)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16일 - 9월 25일(10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연화루, 부안 채석강 등	공 연 팀	5개국 679명
	주 제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공 연 팀	59개 프로그램 76회 공연

2013	국악 대중화를 통한 세계축제로서의 면모 갖추기			
	주 제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랑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2일 - 10월 6일(5일간)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공 연 팀	37개국 2,834명
2014	국악의 다변화로 현대와 소통하는 축제			
	주 제	대마디 대장단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8일 - 10월 12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공 연 팀	29개국 1,300여 명
2015	비교음악제 확대를 통한 세계축제로서의 위상 강화			
	주 제	소리 Big Party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7일 - 10월 11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28개국 1,300여명
2016	'모던한 공연예술'로서 판소리의 가능성 실험, 축제공간의 만족도를 높여 '체류형 축제'로의 변화!			
	주 제	세상의 모든 소리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29일 - 10월 3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 연 팀	28개국 1,300여명
2017	관객과의 소통을 확장하며 판소리와 한국음악의 현대적 보편성 확보			
	주 제	Color of Sori(때깔 나는 소리)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20일 - 9월 24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33개국 1,100여명
2018	국경과 세대, 성별을 초월한 대동의 판을 연출해 공동체 의식의 복원			
	주 제	소리판타지(Sori Fantasy)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3일 - 10월 7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18개국 1,116명
2019	세대, 이념, 지역 간의 갈등과 경쟁을 벗어나 전통예술 속에 담겨진 치유와 위로의 가치 전달			
	주 제	바람, 소리(Wish on the Winds)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2일 - 10월 6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20개국 1,082명
2020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미디어-온라인 공연 5選 엄선,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방역 안전과 미디어 영향력을 우선한 차별화 된 축제			
	주 제	_있다(Link)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16일 - 9월 20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비대면/온라인(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공 연 팀	218명(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2021	'판소리'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조명과 지역 예술가들의 역량 결집, 예술성 있는 작품 소개로 미래 20년의 분기점 마련			
	주 제	소리 #20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29일 - 10월 3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100개 단체 391명
2022	'실내중심 공연 예술제'를 표방하며 공연의 질적 가치에 주목, 공연과 공연장소의 확장성 및 전통의 경향성을 제시한 축제			
	주 제	더늬(20th+1)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16일 - 9월 25일(10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연화루, 부안 채석강 등	공 연 팀	5개국 679명
	주 제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공 연 팀	59개 프로그램 76회 공연

20th + 1
다들-모
전 주 세 계 소 리 축 제
JEONJU INT'L SORI FESTIVAL
FESTIVAL

(5490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3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1층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T 063-232-8398 **F** 063-232-8399

 www.sorifestival.com

 enjoy_sorifestival

 [sorifestival](https://www.facebook.com/sorifestival)

 [sori_festival](https://www.instagram.com/sori_festival)

 [sorifestival](https://www.youtube.com/sorifestival)

※ 이 보고서에는 Mapo 폰트 서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